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파라과이는 드디어 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오전에는 여전히 15도 안팎의 쌀쌀한 날씨에 오후에는 40도 가까운 일교차가 심한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도 파라과이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역하시는 '워싱턴 성광 교회'와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1)'아메리카 미션 스쿨 중고등학교' 건축 공사

'아메리카 미션 스쿨 중고등 학교' 3층 공사가 지붕과 외벽 공사를 마치고 이제 내벽 교실과 바닥 공사가 남았습니다. 원래 4층을 계획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3층까지만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적지않은 물질이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채우실것을 믿으며 또한 문교부에서 조만간 중학교 허가증이 나오면 내년부터는 중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2)'목회자 부부' 재교육 세미나

현지인 '목회자 부부 세미나'는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매번 집회때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많은 목사및 사모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 행하며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데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 주님을 찾는 기복적인 신앙에 젖어있어 근본적으로 변화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지난 5월에 가진 '목회자 부부' 재교육세미나)



(세미나후 점심 식사)

3)'엠보스까다 교도소' 집회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는 '쉴히오' 목사의 소개로 2주전 16일 '엠보스까다 교도소'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도소에는 전체 1700여명의 재소가 있는데 그중에 370여명이 크리스천들로서 별도로 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집회에서 적지않은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매월 일회 정기적으로 집회를 가지며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4)'라트리아' 워십 선교단.

금년에도 한국에서 '라트리아 워십' 선교단이 저희 학교에 와서 한달간 머물면서 어린이들에게 한국 찬양과 워십을 가르키고 돌아갔습니다. 벌써 6년째 시간과 물질을 드려 파라과이에 온 단장님과 집사님 한분은 오전, 오후 13반 어린이들에게 각각 다른 찬양과 워십을 맘을 흘리며 4주간동안 열심히 가르켰고 지난주 수요일 각반 별로 준비한 유니폼을 입고 총연습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11월말 졸업식때 700~800여명의 학부모와 친척들을 초청하여 실내 운동장에서 전교생이 모여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찬사와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5학년)



(유치원 어린이)

<기도 제목>

- 1.김정훈 남영자 선교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 질수 있도록.
- 2.'아메리칸 미션 스쿨 중고등학교' 건축에 필요한 건축금이 채워지도록
- 3.'목회자 부부세미나' 위에 주님의 기름부음이 더 부어 지도록
- 4.새로 시작한 '엠보스까다 교도소' 사역에 대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여 나아가도록